

# 漢代 音變構詞의 淵源 및 형성과정 研究\*

엄재웅\*\*

##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漢代의 音變構詞가 古文字의 의미 분화와 연관성이 있는 용례
  - 2) 漢代의 音變構詞가 古文字의 의미 분화와 연관성이 적은 용례
3.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漢代 이래 적지 않은 문헌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고대중국어 音變構詞의 淵源과 형성과정에 대하여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漢代는 훈고학이 탄생하고 발전한 시기이다. 漢代 훈고학의 시작은 漢代經學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훈고학의 연구를 흥성하게 하였고, 훈고학의 대가들이 나타났으며, 經傳에 대한 엄정한 注釋과 어휘와 의미를 연구한 언어학에 관련된 전문적인 저작이 세상에 나왔다.<sup>1)</sup> 예를 들어, 東漢 말기의 鄭玄은 兩漢 經學의 집대성자로서 『毛詩箋』, 『儀禮注』, 『周禮注』, 『禮記注』 등을 저술하여 경전을 해석하였고, “古今字” “假借字” “因聲求義” 등의 다양한 개념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다양한 漢代의 훈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1555).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王寧(2004:20)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漢代經學의發達, 推動了訓詁工作的興盛; 而大師的湧現, 訓詁體式的完備, 以及條例嚴密的經傳注釋和研究詞彙的語言學專著的問世, 則標誌著訓詁工作擺脫了經學的附庸地位而獨立。”

학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는 周祖謨(1946), G.B.Dower (唐納)(1959), 周法高(1974), 孫玉文(2015)<sup>2)</sup> 등 많은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의 音變構詞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것이 본 논문의 주제를 漢代로 설정한 이유이다.

音變構詞는 유형학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어가 상고시대부터 음절구성요소 중 하나 또는 다중의 요소를 변화시켜 의미상 관련이 있는 어휘를 생성해내는 어휘생성방법, 즉 構詞法의 일종이다. 음절구성요소 가운데 성모, 운모, 성조의 각 요소를 변화시켜 생성된 어휘를 각각 變聲構詞, 變韻構詞, 變調構詞라고 한다. 이 가운데 變調構詞의 용례가 가장 풍부하고, 성조언어인 중국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音變構詞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가장 용례가 많은 變調構詞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연구자들의 훌륭한 연구결과 가운데 아직 전문적으로 漢代이전의 중국어 變調構詞의 연원을 밝히거나 형성과정을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 變調構詞의 연원과 형성과정을 살펴려면 반드시 해당 變調構詞의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를 살펴야한다. 물론 漢代 이전 古文字 자료들은 字音を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해당 變調構詞가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에 있어 분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형태로 분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 變調構詞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漢代 經師家들의 注釋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중국어 異讀字의 초기형태를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說文解字(이후 “說文”으로 약칭)』으로부터 戰國文字, 金文, 甲骨文에 이르기 까지 해당 變調構詞가 古文字 단계에서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는지, 漢代 變調構詞의 음의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漢代의 音變構詞가 古文字의 의미 분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개의 유형

2) 선행연구 가운데 특히 孫玉文(2015)에서는 가장 최근에 연구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전의 연구자가 사용했던 四聲別義라는 용어와 달리, 變調構詞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600여쌍의 漢語變調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타의 선행연구를 포괄하고 진일보한 학설을 제시한 孫玉文(2015)을 주로 참고하였다.

으로 분류하였고, 총 여덟 쌍의 音變構詞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하였다.<sup>3)</sup>

## 2. 본론

### 1) 漢代의 音變構詞가 古文字의 의미 분화와 연관성이 있는 용례

#### (1) 正:正(征)<sup>4)</sup>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음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에서 실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남아있다.

『易·姤』에서는 “정숙한 여성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오래 함께 할 수 없을지니,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롭게 만나면, 만물의 조화가 모두 드러난다.〔勿用取女，不可與長也。天地相遇，品物咸章也。〕”라고 하였고, 注에서는 “(조화가) 올바르면 공이 이루어진다.〔正乃攻城也。〕”라고 풀이하였다. 音義에서는 “正”자는 기본 字音(거성)으로 독음한다.〔正乃，如字。〕”라고 하였다.

『孟子·盡心下』에서는 “征”자는 ‘위에서 아래를 벌하다’라는 의미이다.〔征者，上伐下也。〕”라고 했다.

『爾雅·釋詁』에서는 “于”자는 ‘말하다’라는 의미이다.〔于，曰也。〕”라고 했고, 注에서는 “『詩』에는 ‘멀리 문왕이 계신 하늘에 대하여’, ‘주왕이 출정하라고 명령했네’〔『詩』曰：對越在天，王于出征。〕”라고 보충설명 했다. 音義에서는 “征”자의 독음은 ‘之成反’이다.〔征，之成反。〕”라고 하였다.

『周禮·地官·司門』에서는 “출입 시 이상한 물품을 소지한 자는 찾아내

3) 본 논문에서 다룬 여덟 쌍의 용례 이외에도 더 많은 용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나, 본 논문의 편폭을 고려하여 나머지 내용들은 추후에 작성할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4) 본 논문의 표제자는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이 한 쌍의 표제자 중에서 콜론 “:” 부호의 좌측에 있는 글자가 原始詞이고, 우측에 있는 글자는 滋生詞이다. 둥근 괄호 “( )” 부호 속의 글자는 滋生詞의 後起字이다.

어 물품을 반입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幾出入不物者，正其貨賄。〕”라고 하였고, 鄭注에서는 “‘正’자는 ‘征’으로 독음한다. ‘征’은 ‘세금을 징수하다’라는 의미이다.〔正讀爲征。征，稅也。〕”라고 하였다.

위의 용례들에서 보듯이,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에서 “正”자는 “올바르다. 편중되지 않다.”라는 의미로 풀이하였고, “征”자는 “출정하다”, “처벌하다”, “처벌로써 세금을 징수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하여, “正”자와 “征”자가 의미상으로 명확히 분화하였고, 음운에 있어서도 거성과 평성으로 분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漢代에는 “征”자가 이미 “正”자로부터 완전히 파생 분화되었기 때문에 “正”자의 字形으로 “正”자의 滋生詞의 의미를 갖는 용례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周禮·地官·司門』중의 鄭玄 注에서는 “正”자는 “征”으로 독음한다고(讀爲) 하였다. 鄭玄이 여기에서 “讀爲”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대체로 “正”자의 독음을 나타내는데 쓰였지만, 이 용례 속에서의 “正”자의 음의관계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용례에서 “正”자는 독음이 “征”이고, 字義 또한 “征”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 용례에서의 “征”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原始詞 “正”자에 대한 滋生詞로서 “똑바로 나아가다” 또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벌하다”의 의미는 아니지만, “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벌하다”라는 의미에서 引伸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벌로써) 징수하다. 징집하다”의 의미이므로 의미상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原始詞 “正”자에서 變調構詞를 통해서 滋生詞 “征”으로 발전했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詞義引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다”라는 의미의 “征”의 의미가 파생된 것이다. 이처럼 東漢 鄭玄의 “讀爲”을 통해서도 漢代의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篇』 正部에서 “‘正’자의 독음은 ‘之盛切’이다. ‘길다’, ‘정하다’, ‘바르다’라는 의미이다. 또 하나의 독음은 ‘征’이다.〔正，之盛切，長也，定也，是也。又音征。〕”라고 하였고, 彳部에서 “‘征’자의 독음은 ‘之盈切’이다. ‘다니다’라는 의미이다. 『尚書』에서는 ‘남방을 정벌하니 북방 오랑캐의 인민들이 원망하였다.’〔征，之盈切，行也，『書』曰：南征，北狄怨。〕”라고 하였다. 『廣韻』의 之盛切

에서는 “正”자는 ‘정당하다’, ‘길다’, ‘정하다’, ‘공평하다’, ‘바르다’, ‘군주’ 등의 의미를 가진다. [正, 正當也, 長也, 定也, 平也, 是也, 君也。]”라고 하였고, 諸盈切: “征”자는 ‘걸어가다’라는 의미이다. ‘延’자는 ‘征’자와 같다. [征, 行也. 延, 上同。]”라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중고음시기에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는 이미 완전히 분화되어 “正”자와 “征”자는 흡사 前代의 음의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어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예를 들었던 漢代 經師家들의 주석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正”자와 “征”자 간 음의관계의 연관성이 상당히 긴밀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宋代 賈昌朝가 편찬한 『群經音辨·辨字同音異』에서는 “正”자는 ‘옳다’, ‘길다’라는 의미이고, 독음은 ‘之盛切’이다. ‘正’자는 ‘세금을 징수하다’라는 의미이고, 독음은 ‘征’이다. (正, 是也, 長也, 之盛切. 正, 稅也, 音征。)”라고 하였다. 한편, 孫玉文 (2015:1651)에서는 古代漢語에서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原始詞는 ‘정중양’, ‘평평하고 바르다’, ‘기울지 않다’라는 의미로, 형용사이며, 독음은 ‘之盛切’ (去聲) 이다. 滋生詞는 ‘곧은 길을 따라 멀리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동사이고, 글자는 ‘征’로 쓰기도 한다. 독음은 ‘諸盈切’ (平聲) 이다. [原始詞, 義爲正中, 平正, 不偏斜, 形容詞, 之盛切 (去聲)。滋生詞, 義爲按照直道遠行, 動詞, 字作“征”, 諸盈切 (平聲)。]”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漢代와 漢代이후의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자료, 字書 韻書 音義書 자료 등을 종합해볼 때, 變調構詞로서 “正”자와 “征”자의 음의관계는 명료하다. 音變構詞인 “正”자와 “征”자의 연변상황은 이상과 같다. 아래에서는 “正”자와 “征”자의 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漢代 이전의 古文字 文獻 중에 수록된 “正”자와 “征”자의 字形과 고증자료를 보면, 『金文詁林』(1974: 168)에 수록된 “正”자의 고문字形과 자의에 대한 林義光的 견해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說文』에서 ‘𠄎’은 ‘바르다’라는 의미이다. ‘止’를 따르고, ‘一’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一’과 ‘止’은 ‘正’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古文字에서는 ‘止’로 썼다. 毛公鼎에서의 本義는 ‘과

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마땅하다. ‘●’은 과녁의 형상이고, ‘止’는 ‘나아가다’라는 의미이다.<sup>5)</sup> [『說文』云: ‘正, 是也。从止, 一以止。’按一止無正字意, 古作, 毛公鼎本義當爲正鵠, ●象正鵠形, 从止。]”

何琳儀(1998:795)에서는 “正”자의 古文字 字形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甲骨文에서는 ‘’으로 썼다. ‘止’를 따르고 ‘丁’(城)자의 초문)을 따른다. 『詩·魯頌·泂水』에서는 ‘위풍당당하게 출정한다네’라고 하였고, 箋에서는 ‘征’자는 ‘정벌하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西周金文에서는 ‘’자로 쓰거나 혹은 ‘丁’旁을 간화하여 ‘’으로 쓰기도 하였다. …… 戰國文字에서는 兩周金文을 계승하여 ‘止’旁은 간화되거나 변이가 일어나기도 했으나 ‘丁’旁은 ‘一’획으로 간화되었다. 西周前期 이전에는 ‘正’자가 ‘丁’이 준성부이고, 西周晚期 이후에는 ‘正’자는 ‘止’가 준성부이다. [甲骨文作  (乙一〇五四)。从止, 从丁 (城之初文)。『詩·魯頌·泂水』: “桓桓于征”, 箋: “征, 伐也。”…… 西周金文作  (衛簋), 或簡化丁旁爲一橫作  (善夫克鼎)。……戰國文字承襲兩周金文。止旁或略有變異, 然丁旁均簡化爲一橫。故西周前期以上正爲丁之準聲首, 西周晚期以下正爲止之準聲首。]” 위에서 인용한 “正”자의 古文字 字形 분석을 참고하면, “正”자의 本義는 “성음을 향해 나아가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正”자의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는 바로 金文의 이러한 字形과 字義에서 인신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正”자의 甲骨文 字形과 字義를 기준으로 삼으면 本義는 “성음을 향해 나아가다”가 되고, 金文 字形과 字義를 기준으로 삼으면 本義는 “바르다”, “옳다”가 되는 것이다.

“征”자의 古文字 字形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학설들이 있다. 우선 『說文』에서 “征”자는 ‘바르게 나아가다’라는 의미이다. ‘正’을 따

5) 孫玉文(2015:882)에서는 “征”자와 다른 “正”자의 별도의 滋生詞로서 바로 이 金文의 字形 해석과 연관된 滋生詞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滋生詞는 ‘과녁의 중앙’이라는 의미로, 고대의 과녁은 가죽이나 천으로 만드는데, 이를 “鵠”라고 부르고, “鵠”의 중앙을 “正”이라고 부른다. 또는 “質”이나 “的”이라고 부른다. 동사이고, 독음은 ‘諸盈切’(平聲)이다. [滋生詞, 義爲箭靶的中心。射以中正爲勝, 古代箭靶用皮或布做成, 叫做“鵠”, “鵠”的中心叫做“正”, 也叫“質”或“的”, 名詞, 諸盈切(平聲)。]”

르고, '正'을 성부로 한다. '征'자는 '証'자의 이체자로 '彳'를 따른다. [証, 正行也。从辵, 正聲。征, 証或从彳。]”라고 하였다. 何琳儀(1998:798)에서는 “征”자의 古文字 字形에 대해, “晉나라 金文의 ‘征’자는 ‘征伐’의 의미이다. ……『禮記·月令』에는 ‘不義를 정벌하다’라는 의미이다. 注에서는 ‘征’이란 ‘바로잡다’라는 말로, ‘정벌하다’라는 의미이다. 帛書에서의 ‘征’은 ‘정벌하다’라는 의미, 혹은 ‘다니다’라는 의미이다. 『爾雅·釋言』에서는 ‘征’은 ‘다니다’라는 의미이다. [晉金征, 征伐。……見『禮記·月令』: 以征不義, 注: 征之言正也, 伐也。帛書征, 征伐, 或釋行。『爾雅·釋言』: 征, 行也。]”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고증으로 보면, 전국문자에서 “征”자는 “정벌하다” 또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벌하다”라는 의미이다. 字形의 관점에서 보면, “征”자는 “正”자의 本義를 보유한 상태로, 이미 引申義로 사용되었던 “正”자의 分化字<sup>6)</sup>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正”자와 “征”자의 의미 분화와 역할분담은 上古漢語 이래로 지속되었음이 명확하다.

반면에, 孫玉文(2015)에서는 漢語의 歷史演變의 관점에서 “正”자를 原始詞로, “征”자를 여기에서 파생된 滋生詞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漢語史의 전체를 통찰한 관점이며, 각종 古代漢語의 문헌을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 논리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의 주장과 앞서 인용한 古文字학자들의 견해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征”자의 의미를 “나아가다” 또는 “정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孫玉文(2015)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과 차이가 없이 일치한다. 하지만 “正”자의 本義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孫玉文(2015)은 “正”자의 本義를 “바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해석했다. 孫玉文(2015)은 “正”자의 原始詞를 설정할 때 甲骨文 字形의 本義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金文과 『說文』 등의 字義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林義光是 “正”자의 本義를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보았다. 이는 두 학자가 古文字의 어떤 字形을 기준으로

6) 季旭昇(2004:109)에서는 “‘正’자에 어떤 것은 ‘辵’部를 더하여 ‘証’자를 만들고, 어떤 것에는 ‘彳’部를 더하여 ‘征’자를 만들었다. 사실 모두 ‘正’자에 부수를 더하여 만든 分化字이다. ‘나아가다(行)’라는 의미를 계승한 것이다. [‘正’或加‘辵’部作‘証’, 或加‘彳’部作‘征’, 其實都是‘正’的累增分化字, 繼承‘行’的意義。]”라고 설명하였다.

삼았는가 字形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실 “正”자에 대한 甲骨文이나 金文의 字形 해석은 字形만을 놓고 해석하느냐, 東漢 許慎의 『說文』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字形義와 詞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張聯榮(2000:102-111)<sup>7)</sup>은 “字形義”와 “詞義”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서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音變 構詞의 연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漢代 이전의 古文字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므로, 문맥을 통하여 “詞義”를 판단할 수 있는 용례가 없다면, “字形義”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甲骨文을 기준으로 하느냐, 金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正”자의 本義를 제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록 古文字에서 “正”자의 本義와 引申義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지만, 古文字에서 “正”자는 이미 字義가 분화되었고, 이는 漢代 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正:正(征)”의 變調構詞는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黝:幽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黝”자와 “幽”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黝”자와 “幽”자의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있다.

7) 張聯榮(2000:103)에서는 “字形義”는 字形의 구조로 나타나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字形義’가 바로 ‘詞義’인가?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의 생성은 문자보다 앞선다. 하나의 어휘가 출현할 때, ‘詞義’만 존재했을 뿐, 이른바 ‘字形義’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어떤 어휘를 나타내는 한자가 출현할 때, 즉 한자의 제작(造字)에 관해 말하자면, 어떻게 字形을 통해 ‘詞義’를 나타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개괄하고 추상화하는 것이 ‘詞義’의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字形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字形義既是由字形結構顯示出來的意義, 那麼是不是就是詞義呢? 我們認為這是兩個不同的概念, 應當加以區分。語言的產生既在文字之先, 那麼一個詞出現的時候, 就只有詞義而沒有所謂字形義。當表示某一個詞的漢字出現的時候, 對造字來說, 是如何通過字形去顯示那個詞義。概括和抽象是詞義的根本特徵之一, 要通過具體的直觀的字形去體現就有相當的難度。]”라고 하였다.



『詩·小雅·隰桑』에서는 “늘에서 자라는 뽕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잎은 무성하고도 검푸르네.〔隰桑有阿, 其葉有幽.〕”라고 하였다. 傳에서는 “‘幽’자는 ‘검은 색’이라는 의미이다.〔幽, 黑色也.〕”라고 하였고, 音義에서는 “‘有幽’ 중의 ‘幽’자는 독음이 ‘於糾反’이다.〔有幽, 於糾反.〕”라고 하였다.

『禮記·玉藻』에는 “일등 관원들은 적황색의 관복에 검은 옥을 패용하고, 이등 관원들은 적색의 관복에 검은 옥을 패용한다.〔一命緇黻, 幽衡; 再命赤黻, 幽衡.〕”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幽’자는 ‘黝’자와 같이 읽으며, ‘검다’는 의미로 ‘黝’라고 한 것이다.〔幽讀爲黝, 黑謂爲黝.〕”라고 하였다.

『禮記·玉藻』의 鄭玄의 注를 보면 “幽”자는 “黝”으로 독음한다고 하였다. 이는 鄭玄이 여기에서 “讀爲”라는 용어로 “幽”자의 독음만을 밝힌 것이 아니고, 해당 예문 속에서의 “黝”자의 음의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 용례에서 “幽”자는 독음이 “黝”이고, 의미 또한 “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黝”자와 “幽”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玉篇』黑部에서 “‘黝’자의 독음은 ‘於糾切’이다. ‘검다’, ‘어둡다’, ‘약간 푸르다’라는 의미이다.〔黝, 於糾切, 玄也, 黑也, 微青色也.〕”라고 하였고, 絲部에서는 “‘幽’자의 독음은 ‘伊蚘切’이다. ‘밝지 않다’, ‘심원하다’, ‘미약하다’라는 의미이다.〔幽, 伊蚘切, 不明也, 深遠也, 微也.〕”라고 하였다. 또한 『廣韻』의 於糾切에서는 “‘黝’자는 ‘어둡다’라는 의미이다.〔黝, 黑也.〕”라고 하였고, 於蚘切에서는 “‘幽’자는 ‘깊다’, ‘미약하다’, ‘숨어있다’라는 의미이다.〔幽, 深也, 微也, 隱也.〕”라고 하였다. 中古漢語시기의 字書와 韻書 속에서 “黝”자와 “幽”자의 음의관계의 분화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黝”자와 “幽”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宋代 賈昌朝의 『群經音辨·辨字同音異』에서는 “‘幽’자가 ‘숨다’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은 ‘伊蚘切’이다. ‘幽’자가 ‘검다’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은 ‘黝’이다. (幽, 隱也, 伊蚘切. 幽, 黑也, 音黝.)”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212-213)에서는 古代漢語에서 “黝”자와 “幽”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原始詞는 ‘색깔이 검다’라는 의미이고, 形용사이다. 독음

은 ‘於糾切’(上聲)이다. 滋生詞는 ‘어둡다’, ‘깜깜하다’라는 의미이고, 형용사이다. 독음은 ‘與蚪切’(平聲)이다. [原始詞, 義爲顔色黑, 形容詞, 字作黝, 於糾切(上聲)。滋生詞, 義爲幽暗, 昏暗, 形容詞, 與蚪切(平聲)。]”라고 설명하였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文獻에 수록된 “幽”자의 字形과 古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金文詁林』(1974 : 6978)에 수록된 “幽”자의 古文字形과 字義에 대한 林義光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내가 보건데 ‘幽’자의 古文字형은 ‘幽’이다. …… ‘𠄎’자는 古文字의 ‘玄’자이며, ‘山’과 ‘玄’를 따른다. 두 개의 ‘玄’자(玆)를 의무로 사용했는데, 의미는 ‘玄’과 같다. ‘검푸르죽죽하다(黝黑)’라는 의미이다. [按古作 幽, …… 𠄎 古玄字, 从山、玄。从二玄, 猶玄也。玄黝黑也。]”라고 설명하였다. 何琳儀(1998:159)에서는 “金文에서는 ‘幽(叔向簋)’의 字形으로 쓰였는데, 이는 ‘火’자를 ‘山’자로 잘못 쓴 것이다. 戰國文字는 金文을 계승하였다. [金文作 幽(叔向簋), 其火旁誤作山形。戰國文字承襲金文。]”라고 하였다. “幽”자의 古文字형에 대해 林義光과 何琳儀의 이견이 있는데, “幽”자의 字義에 대해서도 林義光은 “검푸르죽죽하다”라는 색채를 나타내는 의미를 本義로 풀이한 반면, 何琳儀는 “은폐하다”라는 『說文』의 해석을 “幽”자의 本義로 삼았다. 『說文』의 기록을 보면, “幽”자는 ‘은폐하다’라는 의미이다. ‘山’자와 중간 ‘玆’자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玆’자는 또한 성부이기도 하다. [幽, 隱也。从山, 中玆, 玆亦聲。]”라고 설명하였다. 羅振玉은 『增訂殷虛書契考釋』에서 “古金文에서의 ‘幽’字는 모두 ‘火’와 ‘玆’를 따르는데, 甲骨文도 이와 같다. 은폐하여 보이지 않았다가 불을 얻어 드러난 것이다. [古金文幽字皆从火从玆, 與此同。隱不可見者, 得火而顯。]”라고 하여 “은폐하다”라는 의미향과 “어둡다. 검다”의 의미향이 어떻게 연관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羅振玉의 해석에 따르면 “幽”자는 일단 “어둡고 검다”는 배경이 전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어둡고 검은” 상황은 “은폐하고 숨기는” 상황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幽”자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미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字形에 나오는 “불을 얻어 드러나다”는 字義는 담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어둡다. 검다”라는 의미를 “幽”자의 本義로 유추할 수 있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중에 “黝”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說文』에서는 다음

과 같이 기록하였다. “黝”자는 ‘약간 푸른 검은색이다. ‘黑’자를 의부로 하고, ‘幼’자를 성부로 한다.〔黝, 微青黑色。从黑, 幼聲。〕 『說文』에서는 “黝”자의 本義를 “약간 푸른 검은 색”이라고 하였는데, 앞에서 인용한 孫玉文(2015)에서의 견해처럼 “黝”자 原始詞이고 “幽”자는 滋生詞라고 할 때, 특이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幽”자의 의부로 쓰인 “玄”자의 『說文』에서의 풀이 때문이다. 『說文』에서는 “玄”자는 ‘아득히 멀다’라는 의미이다. 검고 붉은 색을 띤 것을 ‘玄’이라고 한다.〔玄, 幽遠也。黑而有赤色者為玄。〕라고 하였다. 따라서 “玄”자를 의부로 쓰는 “幽”자는 잠재적으로 “검고 붉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黝”자의 “검고 푸르다”라는 의미와 비교할 때, 바탕이 되는 색채의미를 공유하면서 표출되는 색채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黝”자와 “幽”자는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義關係를 구비하고 있는 變調構詞이다. 이는 앞에서 예를 든 漢代 經師家들의 주석의 내용으로 재차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古文字에는 “黝”자의 字形이 보이지 않고, 『說文』에서야 그 字形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幽”자로 대표되는 “黝”자와 “幽”자의 音義關係는 漢代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나중에 생성된 “黝”자가 “幽”자의 原始義를 대표하는 글자로 쓰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漢代 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黝:幽”의 變調構詞은 “幽”자의 古文字 字形, 字義의 분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陰 : 陰(蔭)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陰”자와 “蔭”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陰”자와 “蔭”자의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있다.

『詩·大雅·桑柔』에서는 “이미 너에게 그들을 드리웠거늘(너의 속내를 알고 있거늘), 돌아와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既之陰女, 反予來赫。〕”라고 하였다. 箋에서는 “이미 다시 너에게 그들을 드리우니, 그에게 환난을 계시한다고 말했다.〔既往覆陰女, 謂啓告之以患難也。〕”라고 하였다. 音義에서는 “陰女”라는 어휘에 대해서, 鄭玄은 독음이 ‘蔭’이고, ‘덮어 그들을 드

리우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王肅는 독음이 평성이고, '그것을 암암리에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이다.〔音義：“陰女，鄭音蔭，覆蔭也。王如字，謂陰知之。”〕라고 하였다.

『禮記·祭義』에서는 “뼈와 살이 땅속에서 썩었고, 덮여져 흙이 되었다.〔骨肉斃於下，陰爲野土。〕”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陰’자는 ‘그늘에 기대다’라는 의미의 ‘蔭’의 독음이고, 사람의 골육을 땅속에 덮어 흙이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陰讀爲依蔭之蔭，言人之骨肉蔭于地中，爲土壤。〕”라고 하였다.

鄭玄의 注를 보면 “陰”자는 “그늘에 기대다”라는 의미의 “蔭”으로 독음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鄭玄이 여기에서 사용한 “讀爲”라는 용어로 “陰”자의 독음을 밝힌 것 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예문 속에서의 “蔭”자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 變調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간의 음의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陰”자와 “蔭”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篇』阜部에서 “‘陰’자의 독음은 ‘於今切’이다. ‘침묵하다’, ‘비치다’, ‘물을 남쪽에 두고 산을 북쪽에 두다’, ‘어둡다’라는 의미이다. ‘하늘의 공력을 운영하여 만물을 비치는’ 것을 ‘陽’이라고 하고, ‘형상이 안 보일만큼 어둡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을 ‘陰’이라고 한다.〔陰，於今切，默也，影也，水南山北也，闇也，營天功明萬物謂之陽，幽無形深難測謂之陰。〕”라고 하였고, 艸部에서 “‘蔭’자의 독음은 ‘於鳩切’이다. 『說文』에서는 ‘초목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우다’라고 하였다.〔蔭，於鳩切，『說文』曰：草蔭地也。〕”라고 설명하였다. 『廣韻』의 於金切에서는 “‘陰’자는 ‘陰과 陽의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說文』에서는 ‘어둡다’, ‘물을 남쪽에 두고 산을 북쪽에 두다’라는 의미이다.〔陰，陰陽也，『說文』作：陰，闇也，水之南山之北也。〕”라고 하였고, 於禁切：“‘蔭’자는 ‘초목의 그늘로 가리다’라는 의미이다.〔蔭，草木蔭翳也。〕”라고 하였다. “陰”자와 “蔭”자의 음의관계는 이미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陰”자와 “蔭”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宋代 賈昌朝의 『群經音辨·辨字音清濁』에서는 “‘陰’자가 ‘기운 중에 탁한 것’이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은 ‘於金切’이다. ‘사물을 가리는데 사용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이 ‘於禁切’이다. (陰，氣之濁也，於金

切。所以底物曰陰，於禁切。)"라고 하였다. 한편, 孫玉文(2015:1533-1535)에서는 古代漢語에서 "陰"자와 "蔭"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原始詞는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로, 명사이다. 독음은 '於金切'(平聲)이다. 滋生詞는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다. 독음은 '於禁切'(去聲)이다. [原始詞, 義爲陽光照不到的地方, 名詞, 於金切(平聲)。 滋生詞, 義爲使成爲陽光照不到的地方, 動詞, 於禁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陰"자는 甲骨文, 金文, 戰國文字 등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각의 字形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陰"자의 字義는 『說文』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戰國文字에서는 대부분 姓氏, 地名 등으로 쓰였다. 『說文』에서는 "陰"자에 대해서 "陰"자는 '어둡다', '물의 남쪽, 산의 북쪽'이라고 하였다. '冃'를 의부로, '侏'를 성부로 한다. [陰, 闇也。水之南, 山之北也。从冃, 侏聲。]"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蔭"자는 『說文』이전의 古文字 字形은 남아있지 않는다. "蔭"자에 대해서 『說文』에서는 "蔭"자는 '초목의 그늘'이라는 의미이다. '艸'는 의부이고, '陰'는 성부이다. [蔭, 艸陰地。从艸, 陰聲。]"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古文字 자료에 수록된 "陰"자는 이미 變調構詞의 原始詞 "陰"과 滋生詞 "陰(蔭)"의 字義가 어느 정도 구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漢代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陰 : 陰(蔭)"의 變調構詞는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4) 布 : 布(拂)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布"자와 "布(拂)"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布"자와 "布(拂)"자의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있다.

『周禮·天官·外府』에서는 "외부(관직명)는 화폐의 출납을 관장한다. [外府掌邦布之入出。]"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布'는 '샘물'이라는 의미이다. '布'의 독음은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布'(平聲)이다. 숨겨진 것은 '泉'라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布'라고 하므로, (그 화폐의 이름을) '물 흐르는

샘물'에서 지은 것이다. (화폐의) 흐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이다. [布, 泉也。布讀爲宣布之布。其藏曰泉, 其行曰布, 取名于水泉, 其流行無不遍。]”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등장한 “邦布”라는 어휘는 “화폐”를 가리킨다. 鄭玄이 “邦布”에서 “布”자의 독음을 특별히 설명한 이유는 여기에서의 “布”자의 독음은 일반적인 “布”자의 거성 독음이 아니라, 평성으로 독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布”자는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布”(平聲)으로 독음한다고 하였다. 鄭玄이 여기에서 사용한 “讀爲”라는 용어로 “布”자의 독음을 밝힌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예문 속에서의 “布”자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 變調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간의 음의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左傳·昭公十六年』에서는 “僑가 만약 옥을 헌상한다면, 성취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사사로이 알려드립니다. [僑若獻玉, 不知所成, 敢私布之。]”라고 하였다.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原始詞 “布”자와 滋生詞 “布(拊)”자의 음의 관계는 四聲別義 또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孫玉文(2015:1636-1637)에서도 이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原始詞는 ‘사람들이 입을 삼베로 지은 의류’라는 의미로, 명사이다. 독음은 ‘博故切’(去聲)이다. 滋生詞는 ‘풀다’, ‘펼치다’, ‘전개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다. 글자는 ‘拊’로 쓰기도 한다. 독음은 ‘博孤切’(平聲)이다. [原始詞, 義爲人們所服用的麻織品, 名詞, 博故切(去聲)。滋生詞, 義爲展舒, 鋪設, 展開, 動詞, 字作“拊”, 博孤切(平聲)。]”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布”의 滋生義(나중에 ‘拊’자로 씀)의 경우에는, 詞義構詞를 통해서 “화폐”, “전개하다”, “진술하다” 등의 의미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즉, 앞에서 인용한 『周禮·天官·外府』와 『左傳·昭公十六年』의 용례가 바로 “布(拊)”의 滋生詞에 해당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布”자와 “布(拊)”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篇』의 巾部에서는 “布”자의 독음은 ‘本故切’이다. ‘삼베로

만든 직물, 또한 '진열하다'라는 의미이다. [布, 本故切, 泉織也。又陳列也。]”라고 하였고, 手部에서는 “‘拈’자의 독음은 ‘卜路切’이다. ‘서로 손에 쥐다’라는 의미이다. [拈, 卜路切, 相持也。]”라고 하였다. 『廣韻』의 博故切에서는 “‘布’자는 ‘면 직물과 견직물, ‘늘어놓다’라는 의미이다. 『周禮』에서는 ‘금전이 유통되는 것을 ‘布’라고 하며, 머물러 있는 것을 ‘泉’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布, 布帛也。又陳也。『周禮』: 錢行之曰布, 藏之曰泉。]”라고 하였고, 博孤切: “‘拈’자는 ‘펼치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布’라고도 한다. [拈, 展舒也。又布也。]”라고 하였다. 原始詞이자 去聲인 “布”자와 滋生詞이자 平聲인 “布(拈)”자의 음의관계는 이미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漢代 經師家들의 주석에서 보이는 “布”자와 “布(拈)”자 간의 음의관계가 漢代이전의 상고한어에서 기인하였고, 후대로도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古文字 文獻 중의 “布”자와 “布(拈)”자의 字形과 고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何琳儀(1998:594)에서 戰國文字 “魏稿形布”에 수록된 “布”에 대해서 “화폐(布幣)”로 해석하였고, “信陽簡”에 수록된 “布”에 대해서 “재화(貨財)”로 해석했으며, “詛楚文”에 수록된 “布”에 대해서 “나열하다(列)”로 해석했다. 『說文』에서는 “‘布’는 삼베 직물이다. ‘巾’를 의부로, ‘父’를 성부로 한다. [布, 泉織也。从巾, 父聲。]”라고 하였고, 段玉裁注에서는 “‘布’자의 引伸義는, 무릇 흐트리는 것을 ‘布’라고 하며, ‘돌려말거나 펼칠 수 있다(可卷舒)’라는 (本義로부터) 의미를 취하였다. [引伸之, 凡散之曰布, 取義於可卷舒也。]”라고 하였다. 한편, “拈”자는 『說文』이전의 古文字 字形은 없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戰國文字와 『說文』에서 原始詞 “布”와 滋生詞 “布(拈)”의 字義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東漢시기 鄭玄注의 설명을 근거로 할 때, “布”자와 “布(拈)”자의 字音 또한 이미 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漢代 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布: 布(拈)”의 變調構詞는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胥 : 胥(誦, 壻, 婿, 僭)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胥”자, “誦”자, “壻”자, “婿”자, “僭”자의 음의 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胥”자, “誦”자, “壻”자, “婿”자, “僭”자의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있다.

『周禮·天官·敘官』에서는 “‘서리(胥)’라는 직책은 열 명 가운데 두 명이 있다. [胥十有二人。]”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胥’자는 ‘誦’와 같이 독음하며, 그 가운데서 재능과 지식을 갖춘 자를 말하며, 열 명 중의 우두머리이다. [胥讀如誦, 謂其有才知, 爲什長。]”라고 하였다.

『周禮·秋官·象胥』注의 주에서 : “(象胥라는 관직명 중의) ‘胥’는, 그들 가운데 재주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胥, 其有才知者也。]”라고 하였다.

『詩·小雅·桑扈』에서는 “재주와 지식이 있는 군자는 즐거워 하네. [君子樂胥]”라고 하였고, 箋에서는 “‘胥’란, 재주와 지식이 있다는 의미의 명칭이다. [胥, 有才知之名。]”라고 하였다.

『周禮·秋官·士師』에서는 “도적을 쫓아가서 잡고, 형벌을 내리거나 상을 하사한다. [以比追胥之事, 以施刑罰慶賞。]”라고 하였고, 鄭注에서는 “‘追’란, ‘도적을 쫓아간다’는 의미로, ‘胥’자는 ‘경험이 풍부한 관리(宿僭)’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의 ‘僭’(上聲)로, ‘僭’는 ‘도적을 쫓아가 잡는 관리’를 일컫는다. [追, 追寇也。胥讀如宿僭之僭, 僭謂司搏盜賊也。]”라고 하였다.

『周禮·秋官·士師』의 鄭玄의 注에서는, “胥”자는 “경험이 풍부한 관리(宿僭)”라는 의미의 “僭”(上聲)로 독음한다고 하였다. 鄭玄이 여기에서 사용한 “讀如”라는 용어로 “胥”자의 독음을 밝힌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예문 속에서의 “胥”자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 變調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 간의 음의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용례에서 “胥”자는 독음이 “僭”이고, 의미 또한 “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胥”자, “誦”자, “壻”자, “婿”자, “僭”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篇』의 肉部에서 “‘胥’자의 독음은 ‘思餘切’이다. ‘게로 만든 것갈’이다. [胥, 思餘切, 蟹醢也。]”라고 하였고, 言部에서는 “‘誦’자의 독음은 ‘相呂切’이다. ‘재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다. [誦,



相呂切, 才智之稱也。]”라고 하였다. 土部에서는 “‘婿’자의 독음은 ‘思計切’이다. 『爾雅』에서는 ‘딸자식의 남편’을 ‘婿’라고 한다. 혹은 ‘婿’라고 한다. [婿, 思計切, 『爾雅』云: 女子之夫爲婿。或作婿。]”라고 하였다. 『廣韻』의 私呂切에서는 “‘諳’자는 ‘재주와 지혜의 명칭’이다. ‘胥’자도 이와 같다. [諳, 才智之稱. 胥, 上同。]”라고 하였고, 蘇計切에서는 “‘婿’는 ‘딸의 남편’이다. [婿, 女夫。]”라고 하였다. 『集韻』에서 “‘胥’자에 대해 “독음이 ‘諳’이다.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音諳, 有才智者之稱。]”라고 하였다.

“‘胥’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宋代 賈昌朝의 『群經音辨·辨字同音異』에서는 “‘胥’자가 ‘서로 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독음이 ‘相居切’이다. ‘胥’자가 ‘재주와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독음이 ‘息呂切’이거나 혹은 ‘相居切’이다. ‘부소나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독음이 ‘疏’이거나 혹은 ‘相居切’이다. ‘胥’자가 ‘계장’이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이 ‘素’이거나 또는 ‘相居切’이다. (胥, 相也, 相居也. 胥, 才知之稱也, 息呂切, 又相居切. 扶胥木兒也, 音疏, 又相居切. 胥, 蟹醢也, 音素, 又相居切。)”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534-536)에서는 古代漢語에서 “胥”, “諳”, “婿”, “婿”, “胥” 등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原始詞는 ‘재주와 지혜가 있다(지혜롭다)’라는 의미로, 형용사이다. 독음은 ‘私呂切’(上聲)이다. 滋生詞는 ‘사위’, ‘딸의 지아비’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다. 글자는 ‘婿’로 쓰기도 한다. 독음은 ‘蘇計切’(去聲)이다. 滋生詞는 ‘하급관리’라는 의미로, 명사이다. 독음은 ‘相居切’(平聲)이다. [原始詞, 義爲有才智, 形容詞, 私呂切(上聲). 滋生詞, 義爲女婿, 女之夫, 名詞, 字作‘婿’, 蘇計切(去聲). 滋生詞, 義爲小吏, 名詞, 相居切(平聲)]”라고 설명하였다. 『王力古漢語字典』에서는 “胥”, “諳”, “婿”, “婿”, “胥” 등의 다섯 글자를 “독음이 유사하고 의미는 같은(音近義同)” 同源詞라고 보았다. “胥”, “諳”, “婿”, “婿”, “胥” 는 “音近義同”의 同源詞이기는 하지만, 이 어휘들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本義와 引伸義의 字義 및 字音의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이 어휘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同源詞라기보다는 原始詞와 滋生詞의 관계가 명확한 音變構詞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文獻 중에는 “胥”, “諳”, “婿”, “婿” 자의 古文字형을 일부

수룩하고 있지만, 이 글자들을 구체적으로 고증한 내용은 많지 않다. 何琳儀 (1998:581)의 戰國文字 문헌인 “齊璽” 중에서 “胥”자는 人名으로 쓰였다. 戰國文字 문헌인 “楚璽” 중 “誦”자는 “재주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한편 『說文』에서 “胥”자에 대해서 “‘胥’는 ‘계로 만든 것’이다. ‘肉’을 의부로 하고, ‘疋’를 성부로 한다. [胥, 蟹醢也。从肉, 疋聲。]” 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誦”자에 대해서 “‘誦’자는 ‘알다’라는 의미이다. ‘言’을 의부로 하고, ‘胥’를 성부로 한다. [誦, 知也。从言, 胥聲。]”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婿”자에 대해서 “‘婿’자는 ‘지 아버지’이다. ‘士’를 의부로 하고, ‘胥’를 성부로 한다. 『詩』에서는 ‘부녀자로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거늘, 지 아버지는 행실이 간교하기 끝이 없네.’라고 하였다. ‘士’는 ‘지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독음은 ‘細’와 같다. ‘婿’자처럼 ‘婿’자는 간혹 ‘女’를 의부로 하기도 한다. [『說文』: “婿, 夫也。从士, 胥聲。『詩』曰: ‘女也不爽, 士貳其行。’士者, 夫也。讀與細同。婿, 婿或从女。]”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胥”자와 “婿”자의 음의관계는 古文字의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漢代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胥: 胥(誦, 婿, 婿, 婿)”의 變調構詞은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漢代의 音變構詞가 古文字의 의미 분화와 연관성이 적은 용례

### (6) 田:田(佃/甸)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田”자, “佃”자, “甸”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다음은 “田”자, “佃”자의 음의관계에 관한 용례이다.

『周禮·冬官·匠人』에서는 “밭이랑을 두 배로 늘리다(田首倍之。)”라는 문장이 있는데, 注에서는 “‘田’이란 ‘한 사내가 경작하는 백 무의 밭’이다. 사방 백 보의 땅이다. [田, 一夫之所佃百畝, 方百步地。]”라고 설명했고, 音義에서는 “‘所佃’이라고 할 때의 ‘佃’은 독음이 ‘田’과 같이 평성이다. 또는 ‘電’과 같이 거성으로 독음하기도 한다. [所佃, 音田, 又音電。]”라고 하

였다.

다음은 “田”자와 “甸”자의 음의관계에 관한 용례이다.

『周禮·春官·小宗伯』에서는 “들에서 사냥할 때는 사냥을 권장하는 관리인 ‘유사’라는 장군이 잡은 짐승을 교외의 神들에게 헌상하고, 나중에 신 하들에게 나누어 준다.〔若大甸, 則帥有司而饁獸於郊, 遂頒禽。〕”라고 하였고, 鄭注에서 “‘甸’자는 ‘田’으로 독음한다.〔甸讀曰田。〕”라고 하였다.

이 용례를 통가자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甸’자와 ‘田’자의 음변구사의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禮記·王制』에서는 “(왕도 주위의) 천 리 이내의 지역을 ‘甸’이라고 한다.〔千里之內曰甸。〕”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농사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곡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服治田, 出穀稅。〕”라고 하였다. 音義에서는 “‘甸’자는 독음이 ‘徒遍反’이다.〔甸, 徒遍反。〕”라고 하였고, 疏에서는 “‘知甸’은 농사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곡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사람이다.『禹貢』에서는 ‘오 백리 면적 안(에서 농사의 수확에 대해 거두는 세금)’을 ‘甸服’이라고 하였다.〔知甸是服治田出穀稅者, 按『禹貢』: 五百里曰甸服。〕”라고 하였다.

이처럼 “田”자, “佃”자, “甸”자의 음의관계가 서서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으며, 漢代 經師家들이 남긴 注釋 속에서 變調構詞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田”자, “佃”자, “甸”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篇』 田部에서 “‘田’자의 독음은 ‘徒堅切’이다. ‘흙’, ‘땅’이라는 의미이다. 『說文』에서는 ‘펼치다’라는 의미로, 곡물을 심는 것을 ‘田’이라고 한다. ‘口’자 네 개가 십자를 따라 놓여있는 형상을 닮았는데, 밭고랑과 이랑에 관한 제도이다.〔田, 徒堅切, 土也, 地也, 『說文』云: 陳也, 樹穀曰田, 象四口, 十, 阡陌之制也。〕”라고 하였다. “甸”자에 대해서는 “‘甸’자의 독음은 ‘徒見切’이다. ‘오 백리 면적 안(에서 농사의 수확에 대해 거두는 세금)’을 ‘甸服’이라고 한다. 孔傳에서는

‘정방형 천 리 이내를 일컬어 甸服’이라고 한다. [甸, 徒見切, 『夏書』曰: 五百里甸服。孔傳云: 規方千里之內謂之甸服。)]라고 하였다. 『廣韻』의 徒年切에서는 “‘田’자는 『釋名』에서, 장정들이 이미 개간해놓은 땅을 ‘田’이라고 한다. ‘田’자는, ‘채우다’라는 의미이다. ‘오곡을 심 그 안을 채운다’라는 의미이다. [田, 『釋名』曰: 士已耕者曰田, 田, 填也, 五稼填滿其中也。]”라고 하였고, 堂練切: “‘甸’자는 ‘왕도 주변 교외지역의 농지’이라는 의미이다. 『書』에서는 ‘오 백리 먼적 안(에서 농사의 수확에 대해 거두는 세금)’을 ‘甸服’라고 했다. [甸, 郊甸, 『書』曰: 五百里甸服。]”라고 하였다. “田”자와 “甸”자의 음의관계는 이미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漢代 經師家들의 주석에서 보이는 “田”자와 “甸”자 간 음의관계의 연관성이 상당히 긴밀하다.

“甸”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宋代 賈昌朝의 『群經音辨·辨字同音異』에서는 “‘甸’자가 ‘왕도 주변의 농지’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독음이 ‘徒練切’이다. ‘甸’자가 ‘왕도 인근의 네 개의 언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일 때는, 독음이 ‘乘’이다. ‘甸’자가 ‘사냥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독음은 ‘畋’이다. (甸, 畿也, 徒練切。甸, 四丘地也, 音乘。甸, 獵也, 音畋。)”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993-999)에서는 古代漢語에서 “田”자, “佃”자, “甸”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田”자에 대해서는, “原始詞는 ‘밭’이라는 의미로, 명사이며, 독음은 ‘徒年切’ (平聲) 이다. [原始詞, 義爲田地, 名詞, 徒年切 (平聲)。]”라고 하였다. “佃”자에 대해서는, “滋生詞는 ‘밭을 경작하다’는 의미로, 동사이고, 글자는 ‘佃’로 쓰기도 한다. 독음은 ‘堂練切’ (去聲) 이다. [滋生詞, 義爲耕種田地, 動詞, 字作“佃”, 堂練切 (去聲)。]”라고 하였다. 또한 “甸”자에 대하여 “滋生詞는 ‘왕도 주변 교외지역의 농지’라는 의미로, 명사이고, 글자는 ‘甸’로 쓰기도 한다. 독음은 ‘堂練切’ (去聲) 이다. [滋生詞, 義爲郊甸, 名詞, 字作“甸”, 堂練切 (去聲)。]”라고 설명하였다.

漢代 이전의 古文文字 文獻 중에 나오는 “田”자, “佃”자, “甸”자의 字形에 대한 기록과 고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金文字典』(1974:1959)에서는 “田”자에 대하여, “本義는 『說文』에서 ‘곡물을 심은 땅의 형상으로, 고랑과 이랑이 가로세로로 난 모양’이라는 의미로, 명사이다. ……引申義는 (1)‘한 사내 당 (분담되는) 백 무의

땅'이라는 의미로, 명사이다.…… 引伸義가 아닌 것은 (1)'사냥하다'라는 의미로, 동사이다.……[本義：『說文』以為'樹穀之地象， 阡陌縱橫之形'， 名詞。……引伸的：(1)一夫之田百畝， 名詞。…… 非引伸的：(1)獵也， 動詞。……]"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古文字에서 "田"자의 의미는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田"자의 本義 이외에도 다양한 引伸義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引伸義는 후대로 가면서 점차 다른 어휘로 대체되었다.

『金文字典』(1974:1960)에 수록되어 있는 蔣禮鴻(『讀字臆記』)의 견해에 따르면, "'곡물을 심다'라는 의미의 '田'자가 있고, '짐승을 사냥하다'라는 의미의 '田'자도 있다. 字形은 동일하지만 같은 글자가 아니다.[有樹穀之田字， 有獵禽之田字， 形同而非一字也。]"라고 하였고, "'田'자는 바로 '그물'이라는 의미이다. '그물(田)'로 낚짐승과 들짐승을 취하며, 그물로 낚짐승과 들짐승을 잡는 것을 모두 '田'이라고 한다.[田即網也， 田所以取鳥獸， 因之凡取鳥獸皆曰田矣。]"라고 하였다. 그리고 林義光的 『文源』에서는 "『說文』에서(의 '甸'자)는 '勺'자를 포함古文字에서는 '人'자를 포함한다. '甸'자는 당연히 '佃'자와 같은 글자이다. …… '人'자와 '田'자를 의부로 하고, '田'은 또한 성부로 쓰인다.[『說文』从勺之字， 古作从人。 甸當與佃同字……从人、田， 田亦聲。]"라고 하였다.

이처럼 '田'자는 '밭'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물로 짐승을 잡다'라는 의미도 있다. 위의 古文字의 고증자료를 통해서도 金文과 『說文』에서 '田'자가 本義 이외에도 다양한 引伸義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古文字자료에 수록된 "田"자의 引伸義에는 漢代 문헌 기록에서 보이는 "田"의 滋生義인 "밭을 경작하다" 또는 "왕도 주변 교외지역의 농지"라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田"자의 滋生詞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漢代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田:田(佃/甸)"의 變調構詞는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采:采(菜)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采"자와 "菜"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采”자와 “菜”자의 음의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周禮·春官·大胥』에서는 “봄에 태학에 입학하면, 채소를 예물로 스승에게 인사드리는 의례를 행하고, 스승은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친다. [春入學, 舍采, 舍舞。]”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정현은 ‘舍’자를 ‘풀다(釋)’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采’자는 ‘菜’로 독음한다. 처음 입학할 때 반드시 채소를 예물로 가져가 풀어놓고, 선생님께 예를 행한다.” 音義에서는 “‘舍采’에서는 ‘舍’자는 독음이 ‘釋’이고, ‘采’자는 독음이 ‘菜’이다. 의미도 이와 같다. [玄謂舍卽釋也, 采讀爲菜, 始入學必釋菜, 禮先師。]” 音義: “舍采, 音釋, 下音菜。注同。”라고 하였다.

『儀禮·士喪禮』에서는 “군주를 위해서 채소 예물을 풀어놓고 문신(門神)에게 축원 드릴 때, 집주인은 피한다. [君釋采入門, 主人辟。]”라고 하였다. 注에서는 “‘釋采’라는 것은 ‘군주를 위해서 채소 예물을 풀어놓고 문신(門神)에게 축원 드리는’ 것이다. [釋采者, 祝爲君禮門神也。]”라고 하였다. 音義에서는 “‘釋采’에서 ‘采’자는 독음이 ‘七代反’이다. [釋菜, 七代反。]”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 나오는 “釋采”에서의 “采”는 두 가지 독음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采”자를 상성 독음으로 읽으면 “색채, 색깔”의 의미가 되고, “釋采”라는 어휘는 “색채가 있는 (화려한, 상서로운) 의복을 벗다”라는 의미가 된다. “采”자를 거성으로 독음하면 “채소”라는 의미가 되고, “釋采”라는 어휘는 고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식 중의 하나인 “채소를 예물로 바치고 스승이나 신에게 예를 표하는 의례를 행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采”자와 “菜”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篇』木部에서 “‘采’자는 독음이 ‘且在切’이다. ‘색채’, ‘일’, 글고 ‘채취하다’라는 의미이다. [采, 且在切, 色也, 事也, 又取也。]”라고 하였다. 艸部에서 “‘菜’자는 독음이 ‘且賚切’이다. 풀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菜’라고 한다. [菜, 且賚切, 草可食者皆名菜。]”라고 하였다. 『廣韻』의 ‘倉宰切’에서는 “‘采’자는 ‘일’, 그리고 ‘채취하다’라는 의미이다. [采, 事也, 又取也。]”라고 하였고, “‘採’자는 ‘채취하다’라는 의미이다. [採, 取也。]”했다. 倉代切에서는 “‘菜’라는 것은, 풀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菜’라고 한다. [菜, 草可食者皆名菜。]”라고 하였다.

“采”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宋代 賈昌朝의 『群經音辨·辨字同音異』에서는 “‘采’자가 ‘취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독음이 ‘倉宰切’이다. ‘그곳에서 곡식을 취하는 땅’을 ‘采’라고 하는데, 독음은 ‘倉代切’이다. 고대에 경대부들의 食品을 ‘采’라고 했다. (采, 取也, 倉宰切。所以取食曰采, 倉代切, 古代卿大夫所食之地曰采。)”라고 하였다. 한편, 孫玉文(2015:32)에서는 古代漢語에서 “采”자와 “菜”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규정하고 “原始詞는 ‘손가락으로 따다’, ‘고르다’, ‘채취하다’라는 의미이다. 독음은 ‘倉宰切’(上聲)이다. 滋生詞는 ‘채소’라는 의미이다. 글자는 ‘菜’이다. 독음은 ‘倉代切’(去聲)이다. [原始詞, 義爲用手指摘取, 擇, 採取, 倉宰切(上聲)。滋生詞, 義爲蔬菜, 字作“菜”, 倉代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文獻 중에 나오는 “采”자의 字形과 高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何琳儀(1998:97)에서는 “‘采’자의 戰國文字의 字形은 ‘采’(睡虎一八五:盜采人桑葉)’이다. 甲骨文의 字形은 ‘采’(鐵二四·二·一)’이다. ‘木’를 따르고, ‘爪’를 따른다. 손으로 과일이나 나뭇잎을 채취하는 의부가 합쳐진 모양이다. ‘爪’는 또한 성부이기도 하다. ‘采’자는 성모가 淸紐이고, ‘爪’자는 성모가 精紐이다. 精紐와 淸紐는 모두 치음에 속하고, ‘采’는 ‘爪’가 준성부가 된다. 金文의 字形은 ‘采’(遺卣)’이다. 戰國文字는 商周文字를 계승하였다. [采(睡虎一八五:盜采人桑葉), 甲骨文作 采(鐵二四·二·一)。從木, 從爪, 會以手採取果實或樹葉之意。爪亦聲。采, 淸紐; 爪, 精紐。精、淸均屬齒音, 采爲爪之準聲首。金文作 采(遺卣)。戰國文字承襲商周文字。]”라고 설명하였다. 『說文』의 木部에서는 “‘采’자는 ‘손으로 잡아 채취하다’라는 의미이다. ‘木’를 따르고, ‘爪’를 따른다. [采, 捋取也。從木, 從爪。]”라고 하였다. 羅振玉은 『增訂殷虛書契考釋』에서 “나무에서 과실을 채취하는 모양이다. 따라서 ‘爪’, ‘果’를 따른다. 일부 字形에서는 ‘果’자를 생략하고 ‘木’자를 따른다. 과실을 채취하는 것을 ‘采’이라고 하는데, 딸나무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손으로 고르는 것을 일컫는다. [象取果於木之形, 故从爪、果, 或省果从木。取果爲采, 引申而爲樵采及凡采擇。]”라고 하였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文獻 중에 나오는 “菜”자의 字形에 대해서는 주로 金文과 戰國文字에서 볼 수 있으나 字義는 대체로 『說文』와 동일하다. 『說文』의 艸部에 서는 “菜는 풀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이다. ‘艸’을 따르고, ‘采’는 성부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注에서 “이 글자는 형성에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옛날에는 대부분 ‘采’자로 ‘菜’를 대신했다. [菜, 艸之可食者. 从艸, 采聲.]”라고 하였다. 段玉裁注: “此舉形聲包會意, 古多以采為菜。”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볼 때, “菜”자는 古文字에 해당 字形의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漢代 이후에 나타나는 “采”자의 滋生詞로서 “채소”라는 字義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漢代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采:采(菜)”의 變調構詞은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8) 星:星(腥)

漢代 및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에서 “星”자와 “腥”자의 음의관계는 變調構詞에 해당된다. 漢代 經師家들의 經傳 注釋 가운데 “星”자와 “腥”자의 음의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周禮·天官·內饗』에서 “돼지가 눈이 멀어 눈을 감고 있으며, 두드러기가 나는 피부병에 걸린다. [豕盲視而交睫, 腥。]”라고 하였다. 鄭注에서는 “‘交睫腥’라고 할 때의 ‘腥’은 ‘星’으로 독음해야 하는데, 독음이 잘못 표시하였다. 고기에 찢알 크기의 두드러기가 퍼져있는 증상이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交睫腥, 腥當爲星, 聲之誤也, 肉有米者似星。]”라고 하였다.

鄭玄의 注를 보면 “腥”자는 ‘星’으로 대체해야한다고 하였다. 鄭玄이 여기에서 사용한 “聲之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腥”자의 거성 독음을 ‘星’자의 평성 독음으로 수정한 것이다. 鄭玄의 머릿속에 “星”자와 “腥”자의 음의관계가 명확하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예문의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 鄭玄의 이러한 수정은 “星”자와 “腥”자의 음의관계를 잘못 오해한 것으로 “腥”자의 본래의 字音과 字義가 옳은 것이다.



『禮記·內則』에서도 “돼지가 눈이 멀어 눈을 감고 있으며, 돌기가 돋는 피부병에 걸리다.〔豕望視而交睫，腥。〕”라고 하였는데, 注에서는 “‘腥’자는 마땅히 ‘星’으로 써야한다. 독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星’은 피부 가운데 쌀알 같은 것이 생기는 병이다.〔腥，當爲腥，聲之誤也。星，肉中如米者。〕”라고 하였다. 音義에서는 “‘腥’자는 注에 따르면 ‘星’으로 써야한다.……『字林』에서는 독음은 ‘先定反’으로 하였다.〔腥，依注作星，……『字林』音先定反。〕”라고 하였고, 疏에서는 “‘腥’자를 마땅히 星자로 써야한다라고 한 이유는, 피부에 흰 점이 생겨 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린내’라는 의미의 ‘腥臊’라는 어휘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云‘腥當爲星’者，謂肉中白點似星也，故不得爲腥臊之字也。〕”라고 하였다.

中古漢語 字書와 韻書에서는 “星”자와 “腥”자의 음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玉篇』晶部에서는 “‘星’이란, 만물의 정수이며, 밤하늘에 펼쳐진 별자리이다.〔星，萬物之精也，列宿也。〕”라고 하였고, 肉部에서는 “腥，桑丁切，豕息肉也.〔腥，桑丁切，豕息肉也。〕”라고 하였다. 『玉篇』에서는 去聲 독음을 수록하지 않았다. 『廣韻』의 桑經切에서는 “‘星’이란, ‘별자리’이다. 『說文』에서는 ‘만물의 정수이고, 하늘 위에 펼쳐진 별’이라고 하였다. 『淮南子』에는 ‘해와 달의 음침한 기운이며, 그 정수가 별이 된다.’라고 했다.〔腥，桑丁切，豕息肉也。〕未收去聲一讀. 『廣韻』桑經切：“星，星宿，『說文』曰：萬物之精，上爲列星. 『淮南子』曰：日月之淫氣，精者爲星辰也。〕”라고 기록했다. 또한 “‘腥’이란 ‘돼지 (피부 위)의 돌기’이다.〔腥，豕息肉。〕”라고 하였고, 蘇佞切에서는 “‘腥’자는, ‘돼지 (피부 위)의 돌기’이다. 피부에 쌀알 같은 돌기가 있는 것이다.〔腥，豕息肉，肉中似米。〕”라고 하였다.

孫玉文(2015:894-895)에서는 古代漢語에서 “星”자와 “腥”자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構詞로 설정하고 “原始詞는 ‘별’이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다. 독음은 ‘桑經切’(平聲)이다. 滋生詞는 ‘병든 돼지고기에 별 또는 쌀알 모양으로 자란 돌기’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다. 글자는 ‘腥’로 쓰기도 한다. 독음은 ‘蘇佞切’(去聲)이다.〔原始詞，義爲星星，名詞，桑經切(平聲)。滋生詞，義爲病豬肉中像星星或米粒的息肉，名詞，字作‘腥’，蘇佞切(去聲)。〕”라고 설명하였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文獻 중에 나오는 “星”자의 字形과 고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何琳儀(1998:816)에서는 “星”자의 字形에 대해 “甲骨文에서는 ‘𠄎’ (前七·二六·三)으로 썼으며, 다섯 개의 별을 의부로 하고, ‘生’자를 성부로 한다. 金文에서는 ‘𠄎’ (麓伯星父簋)으로 썼으며, ‘晶’을 의부로 하고, ‘生’을 성부로 한다. 戰國文字에서는 金文을 계승했다. ‘晶’旁은 일부 字形에서 ‘日’旁으로 쓴다. [甲骨文作 𠄎 (前七·二六·三)。從五星，疊加生聲。金文作 𠄎 (麓伯星父簋)，從晶，疊加生聲。戰國文字承襲金文。晶旁或省作日旁。]” 라고 하였다. 또한 戰國文字 중 “星”자의 활용상황에 대해 고유명사인 “姓氏” (璽彙二七四五)로 쓰이거나, “별자리(星辰)” (帛書甲一)의 의미로 사용됐고, 일부는 “睛”자와 “精”자의 통가자로 쓰였음을 밝혔다. 漢代 이전의 古文字 중에 “腥”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볼 때, “腥”자는 古文字에 해당 字形의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漢代 이후에 나타나는 “星”자의 滋生詞로서 “명든 돼지고기에 별 또는 쌀알 모양으로 자란 돌기”라는 字義도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漢代 이래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星 : 星(腥)”의 變調構詞은 古文字의 字形, 字義의 분화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音變構詞의 연원과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여덟 쌍의 중국어 變調構詞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漢代 이전 古文字 자료들을 활용하지 않은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變調構詞 용례들의 漢代의 활용상황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 變調構詞가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분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파악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유형의 變調構詞의 용례들은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분화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漢語史의 관점에서 볼 때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분화가 變調構詞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한 유형의 變調構詞의 용례들은 古文字의 字形

과 字義의 분화와 관련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분화가 變調構詞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變調構詞과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變調構詞가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분화와 연관성이 있는 용례는, “正: 正(征)”, “黝: 幽”, “陰: 陰(蔭)”, “布: 布(拊)”, “胥: 胥(誦, 婿, 僭, 僭)” 등이다. 이 용례들의 경우, 漢代 音變構詞의 음의관계가 漢代 이전의 古文字 자료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 연원을 유추할 수 있고, 각각의 音變構詞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原始詞에서 滋生詞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古文字의 字形과 字義의 분화가 變調構詞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田: 田(佃/甸)”, “采: 采(菜)”, “星: 星(腥)” 등이다. 이 용례들은, 漢代 音變構詞의 음의관계가 漢代 이전의 古文字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연원을 유추하기 힘들다. 다만 『說文』을 근거로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음의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위의 결과와는 별도로, 본 연구에서는 “讀爲”, “讀如”, “讀若”, “聲之誤” 등의 용어가 쓰이는 經傳 注釋의 용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漢代 經師家의 注釋과 音讀 자료에서 사용되는 “讀爲”, “讀如”, “讀若”, “聲之誤” 등의 용어는 주로 온전히 독음을 밝히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의 용례의 경우 漢代 經師家들이 특별히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에 해당하는 어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용례들을 분석한 결과, 해당 音變構詞에 대한 漢代 經師家의 注解와 音讀 자료를 통해서 漢代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관계를 고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參考文獻〉

- [梁]顧野王著, 『原本玉篇殘卷』, 中華書局, 1985/2004.  
 [梁]顧野王著, [宋]陳彭年等重修,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2004.  
 [隋]陸德明著, 黃坤堯, 鄧仕樑校訂索引, 『經典釋文』, 學海出版社, 1988.

- [宋]陳彭年, 丘雍等重修, 『廣韻』, 中華書局, 1960.
- [宋]賈昌朝著, 『群經音辨』, 商務印書館, 1934.
- 周祖謨, 『四聲別義釋例』, 『問學集』, 北京, 中華書局, 1946.
- G. B. Dower(唐納), 「Derivation by Tone-change in Classical Chines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No.22』, London, 1959.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構詞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專刊之三十九, 臺灣, 1962.
- 唐作藩, 「破讀音的處理問題」, 『辭書研究』, 北京, 第2期, 1972.
- 周法高, 『金文詁林』,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74.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
- 王力, 「『經典釋文』反切考」, 『音韻學研究』, 北京, 第1輯, 中國音韻學研究會, 1984.
- 許威漢, 『訓詁學導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7.
- 于省吾, 『甲骨文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北京, 中華書局, 1998.
- 張聯榮, 『古漢語詞義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季旭昇, 『說文新證』, 臺北, 藝文印書館, 2004.
- 王寧, 『訓詁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 蔣紹愚, 『古漢語詞彙綱要』,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孫玉文, 『漢語變調構詞考辨』, 北京, 商務印書館,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in Han Dynasty

Yum, Jae-Ung

This research studied the source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This research tried to supplement the weaknesses that did not utilize the old character data in the previous research. And it was analyzed whether or not the differentiation of the Old Chinese character shape and the

semantics had an effect o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ase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Old Chinese character shape and the semantics had an effect o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正:正(征)”, “黝:幽”, “陰:陰(蔭)”, “布:布(拊)”, “胥:胥(誦, 壻, 婿, 偁)”. In this examples,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betwee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as reflected in the Old Chinese character shape and the semantics, and we can deduce that source.

Second, the case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Old Chinese character shape and the semantics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田:田(佃/甸)”, “采:采(菜)”, “星:星(腥)”. In this examples, the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 between the variant of ancient Chinese was not reflected in the Old Chinese character shape and the semantics, and it is hard to deduce that source.

This study also attempted a new interpretation about the relation of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using annotations of Confucius Scholars of Han dynasty such as “讀爲”, “讀如”, “讀若”, “聲之誤”.

Key words: Variant of ancient Chinese words,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the Old Chinese character shape and the semantics, Confucius Scholars of Han dynasty

이 논문은 2018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